

예방접종. 요즘 예방접종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또한 때가 때이니 만큼 일찌감치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신종플루 덕분에(?)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이제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감염의 고위험군인 당뇨병환자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자 한다.

## 당뇨병환자, 예방접종 합시다!

### 예방접종의 필요성

사람들 사이에서의 전염을 예방하고 그 감염성 질병의 발생과 그것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의 사망이 주로 성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아에 비해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적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년 약 1000명의 소아가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에 비해, 성인에서는 매년 5~7만 명이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폐렴구균 감염, 인플루엔자, B형 감염 등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이는 분명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방접종이 적용되는 전염병에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감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있다.

### 당뇨병환자에서의 예방접종

당뇨병환자의 경우 감염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더 잘 되고, 감염질환에 대한 합병증 위험도 높아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접종은 당뇨병환자가 질병관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욱 강조할 만하다. 더불어 정희진 교수는 “당뇨병의 이환 기간이 길면 당뇨자체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신질환 및 타 말단 장기의 구조적,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 이외에도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

우가 많아 당뇨병환자는 다른 만성질환에서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 대한감염학회 권장 당뇨병환자에서 예방접종

- Td 백신을 매 10년마다 접종한다.
-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폐렴알균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MMR과 수두 백신은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감염의 증거가 없을 때 접종한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통 ‘독감’이라고 불리는 감염성 질환을 뜻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인, 2세 미만의 소아, 당뇨와 같은 만성적인 내과질환을 가진 사람, 즉 고위험군은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질환의 정도와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정 교수는 “당뇨병환자는 인플루엔자 발병 후에 폐렴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권장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당뇨병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을 52% 감소시키고, 입원율을 54% 감소시키며, 사망률 또한 58% 가량 감소시키는 보고가 있다”고 당뇨병환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매년 12~1월에 집중된다. 해에 따라 3~5월 봄철에 한 차례 더 유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0~11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주사 후 1년 이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폐렴알균 예방접종

폐렴알균은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폐렴알균에 의한 심각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해야 한다. 폐렴알균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의 경우와 비슷해 당뇨병환자도 주요 대상이다. 당뇨병은 심혈관질환이나 심부전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폐렴알균 감염 위험성을 높여 예방이 필수이다.

이 폐렴알균 예방접종은 2세 이상의 당뇨병환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1회만 접종하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접종을 한지 5년이 경과한 65세 이상의 환자나 신질환, 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경우는 추가접종이 요구된다.

####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접종(Td백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가예방필수 접종 중의 하나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신은 성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발표해 관련 단체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한창이다. 당뇨병환자 또한 이에 방접종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뇨로 인한 신경, 혈관합병증 때문에 당뇨족 등의 합병증이 흔하고 외상과 연관된 창상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Td백신 접종도 중요하다는 정희진 교수의 주장이다.



이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접

종은 만성신부전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뇨병환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3회의 기초 접종 후에 10년 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홍역·볼거리·풍진 (MMR)과 수두 예방접종**

어렸을 적, 홍역·볼거리·풍진·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가? 앓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평생 면역’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MR과 수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임기 여성은 임신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임신 중 수두 등에 걸리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은 까닭이다.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적어도 1개월이 지난 뒤에 임신을 시도하도록 하자.

이 홍역·볼거리·풍진과 수두 예방접종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이 감염에 노출되면 건강한 소아에서는 대부분 합병증 없이 지나

갈 수 있지만, 성인에서는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에 이 병에 감염된 적이 없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실패는 가히 좋지 않다. 또한 아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보다는 소아를 대상으로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당뇨병, 즉 고위험 인자를 가진 자체만으로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당뇨병과 고연령 등 감염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를 지닌 사람들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문의와 상담 후 올바른 전략을 세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방법이다. <math>\infty</math>